

LG전자, 곡면 OLED TV 출시

CFRP 채용해 경량 디자인 구현 ... 국내 가격은 1500만원

LG전자(대표 구분준)가 4월29일 55인치 곡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1월 초 55인치 OLED TV를 처음 선보인데 뒤이은 것으로 차세대 초고화질 대형 TV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곡면 OLED TV는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화면의 양옆이 오목하게 휘어졌다.

기존 평판TV와 달리 시청자의 눈에서부터 화면 중심부와 측면까지의 각 거리가 동일해 화면 왜곡과 시야각 끝 부분이 흐려지는 <외곽부 인지도 감소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편안하고 실감나는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강도 초경량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을 사용해 4.3mm의 초슬림 두께와 17kg의 경량 디자인을 구현했다.

세계 최초로 필름 스피커를 적용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스피커가 화면 아래나 뒤쪽에 위치한 일반 TV와 달리 전면의 스탠드 좌우에 투명하고 얇은 필름타입의 스피커를 채택함으로써 음의 명료도와 고음의 선명도 향상은 물론 임장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4월29일부터 주요 백화점과 LG 베스트샵, 양관점 등 전국 20곳에 LG 곡면 OLED TV를 전시하고, 예약주문을 받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가격은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곡면 OLED TV 구입 고객에게 100만원 상당의 순금카드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9>